

“중소기업인 교류의 장”... 中소융합대전 ‘팡파르’

내일까지 DJ센터... ‘글로벌 도약’
전국 4000여 경제인 ‘최대 규모’
청년-선배기업 네트워킹 ‘호응’
숙박·외식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전국 4000여 중소기업인들의 교류의 장인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주관으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24중소기업융합대전은 ‘융합과 혁신으로 창업 실증도시 광주에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등 혁신 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서울, 경기, 인천,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강원 등 국내 13개 지역연합회 소속 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연합, 일반 관람객 등이 참여하는 등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정권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장(DH그룹 회장)은 “융합대전은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대전을 통해 전국 13개 지역연합회 회원사들의 교류로 혁신을 실현하는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2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이 담긴 특허 기술 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이번 행사에서는 △성과전시 △광주지역 우수기업 일자리박람회 △해외수출 상담회 등이 펼쳐지는 등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 개막 행사에서는 300여개 전시 부스, 포럼·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과와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광주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융합대전 처음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생들의 구역이 따로 마련되는 등 청년기업과 선배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도모했다.

서구 농성역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한 모듈랩 박근용 대표도 이날 선배 기업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며 회사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저 같은 청년기업들은 또래 창업인들은 물론 선배 기업인들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행사에 나와 비슷한

업종 기업인들을 만나 네트워킹을 형성, 기술 개발 및 유통·판로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며 “다양한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볼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중소기업인들 간 만남의 장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지역 외 12개 지역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나흘간 광주에 머물며 곳곳의 식당을 방문하거나 숙박하는 등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구·경북 연합회원들의 만찬 장소로 선택된 서구의 한 오리고깃집은 이날 저녁 100여명에 달하는 손님을 받았다.

오리고깃집대표장모씨는 “단체손님이 오게 될 경우 1인당 2만5000원어치는 기본으로 드시고 가신다.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단체손님을 받게 돼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기침체로 소비위축 현상이 심화하는 등 갈수록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융합대전처럼 대규모 행사는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단비나 다행했다”고 활짝 웃었다.

광주지역 숙박업계도 호황을 맞았다. KIA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경기로 예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소기업융합대전까지 열리면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부분 만실을 유지하고 있다.

서구 한 호텔 관계자는 “이달 매출이 지난달과 비교해 10%나 급증했다. 한국시리즈는 물론 이번 중소기업 행사로 400여개 객실이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며 “관광 손님보다 비즈니스 손님이 더 많은 게 지역 호텔업계 특성인 만큼 이번 행사는 업계에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기아, 준중형 SUV ‘더 뉴 스포티지’ 티저 공개

상품성 개선 모델 신규 디자인 예고

기아가 새로운 모습의 스포티지 출시를 예고했다.

기아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The new Sportage)’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올해로 출시 31주년을 맞는 기아의 대표 준중형 SUV 모델인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760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아는 이날 티저 이미지를 통해 더 뉴 스포티지의 전·후면부에 적용한 램프 디자인과 차량의 실루엣을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전·후면부는 기아의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디자인



을 통해 차급을 뛰어넘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측면부는 스포티한 루프라인과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더한다.

이날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 카TV(www.youtube.com/@KiaKorea)에 함께 공개된 티저 영상은 전·후면 램프와 실루엣을 보여주며 더 뉴 스포티지의 새로운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담았다.

박소영 기자

이마트,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총 7만 박스

이마트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절임배추와 이마트 단독으로 운영하는 베타후레쉬 절임배추의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24일 밝혔다.

일반 절임배추는 이마트 전점 4만 박스 한정, 베타후레쉬 절임배추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총 7만 박스를 예약 판매한다. 절임배추는 1박스당 20kg으로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유통하는 날짜를 선택해 수령 받을 수 있다.

‘일반 절임배추(20kg/박스)’는 매장 픽업 기준으로 1박스당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5000원 할인해 행사가 2만9800원에 전점 2만 박스 한정으로 판매한다. 여기에 매장 픽업 시 이마트앱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e머니 3000점을 적립해줘 최종 혜택가는 2만6800원이다.

‘베타후레쉬 절임배추(20kg/박스)’도



동일한 조건인 매장 픽업으로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행사가 3만9800원에 e머니 3000점을 적립해 최종 혜택가 3만6800원이다.

간편 김장 트렌드에 따라 소단량의 ‘김장 KIT’도 준비했다. 절임배추 7kg와 김치 양념 3kg로 구성돼 있으며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행사가 4만2800원에 택배전용상품으로 판매한다.

김치냉장고를 비롯한 김장용

품 행사도 동시 진행한다. 25일부터 31일까지 이마트앱에서 김치냉장고 행사상품 최대 10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행사상품을 동시 구매할 시에는 최대 10만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락앤락 김치통(4.5 l x 2개입)’과 ‘코맥스 피치핑크 김치통(8.3 l x 2개입)’을 각 행사가 8900원·1만3900원에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



재테크 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대선은 투자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거침없는 비트코인 친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가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일회성 발언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면 비트코인 투자에 도움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美 대선 결과

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수년 전 대통령 때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돌변한 태도가 일회성 선거용이 아닌지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인선과 몇몇 발언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감사가 진정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벤스는 소외된 미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잘 알

려진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한다. 즉 최소한 부통령이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인데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이 비트코인 중심국이 될 건데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한 걸을 더 나가 미국 정부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전략자산으로 규정해서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과 같은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가상화폐에 관한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 가상화폐 탄압의 선두 주자로 불리는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가상화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훼방꾼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일회성 선거용 발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NFT 컬렉션을 발행해서 24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존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가상화폐에 관한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 가상화폐 탄압의 선두 주자로 불리는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가상화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훼방꾼으로

호칭하며 당선되는 즉시 파면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은 급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는 미국의 모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확률이 해리스보다 앞서고, 몇몇 미디어에서 일반인이 아닌 선거인단에서의 트럼프 당선여론이 해리스를 뛰어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최근 1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일까. 해리스일까. 세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두 사람은 대선후보를 넘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